

《太平通載》에 수록된 中國 引用文獻의 價値 研究*

金相圭**

◁ 목 차 ▷

- I. 머리말
 - II. 《太平通載》 紹介
 - III. 《太平通載》 價値
 - 1. 《太平通載》에 수록된 《太平廣記》관련 작품의 가치
 - 2. 《太平通載》에 수록된 기타 散失 문헌과 佚文의 가치
 - IV. 맺는말
-

I. 머리말

《太平通載》(以下 《通載》)는 朝鮮時代 文人 成任(1421-1484)이 고대 韓中 양국의 각종 문헌들 중에서 여러 작품을 발췌하여 편찬한 서적이다. 李仁榮선생은 《通載》 殘卷을 발견하고 1940년 학계에 처음 소개한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李來宗선생과 중국 張國風선생이 각각 논문을 발표하여 《通載》의 문헌적 가치를 한국과 중국에 소개하였고, 金程宇, 王國良선생도 《太平廣記詳節》(以下 《詳節》)을 중심으로 한 논문에서 각각 《通載》의 관련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필자는 《通載》 筆寫本인 《太平通載抄》(以下 《通載抄》)를 소개하면서 現存 木版本에 보이지 않는 36편 작품들의 가치를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李來宗, 朴在淵선생은 現存하는 《通載》 木版本 殘卷 12卷을 影印하여 2009년 學古房에서 출판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通載》를 열람하는데 큰 편의를 제공 해 주었다.¹⁾ 이외에도 문학적 연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B5A07048924]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중국어과 전임강사

1) 李仁榮 <《太平通載》殘卷小考 — 特히 新羅 殊異傳 佚文에 對하여>; 《震檀學報》

구도 일부 진행되었다.²⁾

以上 선행연구의 연구범위는 대체로 《通載》 문헌 자체적 측면과 문학적 측면에서 국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무엇보다 《通載》 引用文獻 중 상당수가 중국문헌인 만큼 필자는 수록된 중국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찰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現存하는 《通載》 木版本 12卷과 筆寫本 1冊을 중심으로 《通載》를 紹介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通載》에 수록된 중국 引用文獻의 가치를 實例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세부적인 고찰을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는 《通載》에 수록된 중국문헌 중 《太平廣記》(以下 《廣記》)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廣記》 관련 작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둘째는 《廣記》를 제외한 기타 중국 인용문헌 중 중국에서 산실된 문헌이나 佚文을 찾아 본 書의 중국 引用文獻에 대한 문헌적 가치를 立證하고자 한다.

II. 《太平通載》 紹介

《通載》는 朝鮮 世祖 成宗 年間의 文人 成任(1421-1484)이 《廣記》를 모방하여 15세기 이전의 韓中 양국 문헌들 중에서 여러 奇聞異說의 작품을 발취하여 編纂한 類書이다. 刊行時期는 성임이 死去한 지 8년 후인 成宗 23년(1492)으로 慶尙道 尙州에서 간행되었다. 《通載》의 卷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1940년 제12집, 李來宗 <<太平通載>>一考>>: 《大東漢文學》 1994년 제6집, 張國風 <韓國古書《太平通載》《訓世評話》의 文獻價値>>: 《中國古代小說研究(第一輯)》(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134- 154쪽, 金程宇 <韓國古籍《太平廣記詳節》新研>>: 《域外漢籍叢考》(北京, 中華書局, 2007), 76-77쪽, 王國良 <李朝成任編印《太平廣記詳節》考論>>: 《國際漢學研究通訊(第四期)》(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262-266쪽, 金相圭 <新發現的《太平通載抄》小考>>: 《中國語文學論集》 2012년 제74호, 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2) 박태상 <<太平通載>> 소재 《崔致遠傳》 연구>>: 《古小說研究》 1995년 제1집, 안창수 <<太平通載>> 所在 崔致遠의 小說性 檢討>>: 《韓民族語文學》 1997년 제32집, 金庚美 <15세기 문인들의 “奇異”에 대한 인식: 《太平廣記詳節》·《太平通載》의 편찬·간행과 關連하여>>: 《韓國古典研究》 1999년 제5집.

데, 먼저 成任의 아우인 成倪(1439-1504)은 《慵齋叢話》에서 “八十卷”³⁾으로 기록하였고, 그 이후 대체적으로 《慵齋叢話》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⁴⁾ 李仁榮 선생은 「다만 過去 우리 朝鮮에 있어서는 흔히 卷과 冊을 混同한 例가 적지 않음으로 八十卷이라고 한 것은 곧 八十冊을 意味한 것인지도 모른다. 萬若 《慵齋叢話》의 八十卷이라는 것이 八十冊을 意味한 것이라고 하면, 現存本이 세 卷 乃至 다섯 卷을 한 冊으로 삼은데 依해서 推測해보면, 元來 同書는 적어도 二百四十卷 以上の 巨帙이었을 것이다.»⁵⁾라고 언급하였다. 李來宗 선생은 《廣記》, 《詳節》, 《通載》 3종 문헌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對照하여 《通載》 卷數가 《詳節》의 2배, 즉 총 “100卷”⁶⁾이라고 유추하면서 洪貴達(1438-1504)이 撰한 《文安成公神道碑銘》을 증거로 삼았는데, 碑銘에는 “百卷”⁷⁾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도 李來宗 선생의 근거를 통하여 《通載》 총 卷數가 100卷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점은 成倪가 그의 兄 成任이 편찬한 《通載》 卷數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에서 생각해 볼 때 成倪가 말한 “八十卷”은 아마도 成宗 23년(1492) 刊行以前 原稿本의 卷數일 것으로 판단된다.⁸⁾ 筆寫本인 原稿를 木版本으로 版刻할 때 판본으

- 3) 成倪 《慵齋叢話》 卷10: 「伯氏文安公好學忘倦, 嘗在集賢殿, 抄錄《太平廣記》五百卷, 約爲《詳節》五十卷, 刊行於世. 又聚諸書及《廣記詳節》, 爲《太平通載》八十卷。」
- 4) 《海東文獻總錄·藝文考》, 《增補文獻備考·藝文考》, 《東國通志·藝文志》등은 《慵齋叢話》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北京, 中華書局, 2004), 4129쪽, 3088쪽, 2753쪽 참조. 金鉉龍 선생도 이를 따랐다.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 以《太平廣記》的影響爲主》(서울, 一志社, 1976), 45쪽 참조.
- 5) 李仁榮 《〈太平通載〉殘卷小考》: 《震檀學報》 1940년 제12집, 203쪽. 李來宗 선생은 李仁榮 선생이 주장한 “240卷 以上”에 대해서 「이인영이 목도했던 《태평통제》제100권이 실은 이 책의 마지막 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전 우리 서지학계의 대가였던 그가 이 책의 마지막 권을 어찌서 알아보지 못하였던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아마도 발문이 아예 없었거나 끝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李來宗 《〈太平通載〉一考》: 《大東漢文學》 1994년 제6집, 135쪽 참조.
- 6) 李來宗 《〈太平通載〉一考》: 《大東漢文學》 1994년 제6집, 134-135쪽.
- 7) 洪貴達 《文安成公神道碑銘》: 「公嘗編古今異聞, 釐爲百卷, 名曰《太平通載》, 行于世。」
- 8) 《慵齋叢話》의 저술연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존 연구에 의하면 문헌내용이 燕山 5년(1499)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저술시기는 1499년에서 卒年 1504년 사이로 학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通載》가 1492년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成倪가 저술시기(1499년~1504년 추정)에 이를 인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문

로서의 整齊性을 염두해야 하므로, 版下本 작성 시 그 卷數는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李仁榮선생은 1944년 직접 筆寫하여 《清芬室書目》(9卷 1冊)을 제작하였는데, 卷第一 “壬辰以前刻本及鈔本 朝鮮人撰述 上”에 《通載》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清芬室書目》에는 李仁榮선생이 1940년 학계에 처음 소개한 《通載》 闕本 2冊 8卷(卷68-70, 卷96-100) 이외에도 또 다른 1冊 2卷(卷72-73)이 더 수록되어 총 「太平通載 殘本 十卷 三冊」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書齋 清芬室이 平壤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3冊 10卷”의 행방을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북한 金日成大學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⁰⁾ 지금은 木版本 12卷과 筆寫本 1冊만 국내 몇 곳에 散在되어 있으며 그 卷數와 所藏處는 다음과 같다.

版本	卷次	所藏處
木版本	卷7-9	高麗大學校 晚松文庫
	卷18-21	藏書閣
	卷28-29, 卷65-67	江陵 船橋莊
筆寫本	卷28-29, 卷40-45(추정), 卷65-67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

이 중 筆寫本 1冊은 江陵 船橋莊本을 底本으로 1959년에 필사한 《通載抄》로 현재 淑明女子大學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通載》의 卷數가 100卷일 경우, 卷40에서 卷45 사이에 속하는 작품 36편이 《通載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慵齋叢話》의 저술시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 9) 李仁榮 《清芬室書目》;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北京, 中華書局, 2004), 4475 쪽.
- 10) 朴文烈 <《清芬室書目》考(1) — 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중심으로>; 「李仁榮의 妻 玉靜端 女士 敎示에 의하면, “清芬室”은 그의 집 몇 棟에 걸치는 넓은 書齋 중에서 古書만 蒐集, 保管, 研究하던 이른바 書院規模의 큰 尊經閣 같은 漢籍室이었다. …… 이렇게 蒐集한 그의 古書와 骨董品은 當時 時價로도 몇 億을 呼價할 程度였다고 述懷했고, 이 所藏品들은 金日成大學의 強要에 의해 寄贈形式으로 移管되었다는 後聞을 들었다고 한다.」(《圖書館研究》 1981년 제22권 3호, 17쪽)

들은 기존 木版本에는 보이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이다.¹¹⁾ 筆寫本을 포함한 《通載》 現存本의 인용문헌을 살펴보면, 출처가 확인 가능한 인용문헌이 총 79종이다.¹²⁾ 그 중 중국문헌은 72종, 한국문헌은 7종이다. 비록 殘本을 근거로 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殘本의 引用文獻 대다수가 중국문헌이므로 完帙本의 경우, 인용된 중국문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당시 문인들이 국내 문헌에 비해 구하기 힘든 중국문헌에 대한 갈구의 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편찬자 성임은 《通載》를 편찬하기 전, 世祖 8년(1462)에 500권에 달하는 巨帙의 北宋 문헌 《廣記》를 50卷으로 縮約하여 《詳節》을 刊行한 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Ⅲ. 《太平通載》 價値

《通載》에 수록된 작품들은 한중 양국 문헌에서 발췌되었다. 上記하였듯이 引用文獻의 대다수가 중국문헌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국 引用文獻을 중심으로 《通載》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通載》 引用文獻 중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문헌은 바로 《廣記》로 총 7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¹³⁾ 이를 기준으로 본 절

11) 金相圭 〈新發現의《太平通載抄》小考〉; 《中國語文學論集》 2012년 제74호 참조.

12) 李來宗 선생은 引用文獻이 78종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1994년 논문에서 藏書閣 所藏本 4卷(卷18-21)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高麗大學校晚松文庫 所藏本 3卷(卷7-9), 江陵船橋莊 所藏本 5卷(卷28-29, 卷65-67)과 李仁榮先生 所藏本 8卷(卷68-70, 卷96-100)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13卷에 수록된 引用文獻을 78종으로 삼은 것이다.(李來宗 〈《太平通載》一考〉; 《大東漢文學》 1994년 제6집, 136-137쪽 참조) 또한, 張國風 선생은 「引書61種. 個別的篇目沒有表明出處。」라고 하였고, (張國風 〈韓國古書《太平通載》《訓世評話》의文獻價値〉; 《中國古代小說研究(第一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147쪽) 李來宗 朴在淵 선생은 《通載》序文에서 現存本 12卷에 70여 종의 引用文獻이 있다고 하였다.(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 서울, 學古房, 2009, 2쪽) 그러나 李仁榮先生이 보았던 8卷(卷68-70, 卷96-100)은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8卷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본고의 79종 인용문헌에는 闕文으로 인해 出處가 불분명한 6편 작품(〈葛仙翁〉, 〈茴香道人〉, 〈趙昱〉, 〈遠孝叔〉, 〈柳淑〉, 〈黃琬〉)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13) 張國風 선생은 《廣記》 인용횟수를 69차례라고 하였고, (張國風 〈韓國古書《太平通載》《訓世評話》의文獻價値〉; 《中國古代小說研究(第一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147쪽) 李來宗 朴在淵 선생은 《太平通載》序文에서 71차례라고 언급하였다.

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는 《通載》에 수록된 《廣記》 관련 작품의 가치를 살펴보고, 둘째는 《廣記》를 제외한 引用文獻 중 중국에서 산실된 문헌이나 일문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太平通載》에 수록된 《太平廣記》 관련 작품의 가치

《通載》에 수록된 《廣記》 관련 작품의 가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廣記》 판본 상황을 이해 해 보고자 한다. 《廣記》는 太平興國 3년(978) 李昉 등이 宋 太宗의 命을 받들어 編纂한 古代小說總集으로 漢代부터 宋初에 이르는 近 500種의 방대한 문헌에서 小說, 筆記, 野史 등에 속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500卷(目錄 10권은 미포함)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後世에서 가히 “小說家의 淵海”라고 불릴 만한 巨大 著作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廣記》 宋本은 일찍이 亡失되어 현재는 그 面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내 현존하는 最古 판본은 《廣記》가 編纂되고 近 600년이 지난 후인 明 嘉靖 45년(1566)에 간행된 談愷刻本(以下 談刻本)이다. 이는 그 후 모든 판본의 源流이기도 하다. 談愷(1503-1569)는 전해져 내려오던 南宋 抄本을 底本으로 하여 校正 후 간행하였으나 《廣記》 序文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근래에 《太平廣記》를 얻어 보았는데, 傳寫된지 이미 오래되어 글자에 誤字가 많았고 심지어는 句絶이 되지 않았다. …… 글자의 뜻이 다소 교정되었으나, 여전히 빠진 글자나 闕수가 존재하였다.(近得《太平廣記》觀之. 傳寫已久, 亥豕魯魚, 甚至不能以句 …… 字義稍定, 尙有闕文闕卷.)¹⁴⁾

以上 序文 내용을 통하여 談刻本과 《廣記》 宋本 간에 어느 정도 異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는 談刻本과 이를 底本

(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 서울, 學古房, 2009, 2쪽) 본고에서는 언급하는 77편의 작품은 마지막 면이 落帙되어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들 중, 대조를 통하여 《廣記》에서 인용됨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작품 3편(〈呂翁〉, 〈尉遲敬德〉, 〈韋鮑生〉)도 포함 시킨 篇數이다.

14) 李昉等 編, 談愷重刻 〈談愷本《太平廣記》〉(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9), 제1책 6쪽.

으로 한 中華書局本을 《廣記》原本으로 삼아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근래 程毅中, 張國風선생 등 몇몇 학자들에 의해 《廣記》판본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金長煥 朴在淵 李來宗선생이 국내 散在되어 있는 《詳節》을 수집 및 번역, 中華書局本 간의 校勘, 影印한 후 2005년 學古房에서 출판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一目瞭然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詳節》은 《廣記》의 縮約本이기는 하나, 그 底本이 宋本이며 現存하는 《廣記》판본들 중, 最古 판본으로 談刻本 보다 100년 정도 앞선 시기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廣記》교감연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詳節》도 50卷 完帙本 전체가 전해지지 않고 26卷만 現傳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通載》에서 “出《太平廣記》”라고 明示된 작품들은 모두 《詳節》에서 발췌한 것이다. 출처가 《廣記》라고 明示된 작품들은 모두 《詳節》에 수록되어 있고, 《詳節》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은 《通載》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詳節》과 《通載》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한 작품들을 對照해 보면 文字상 일치하므로 《通載》에 수록된 《廣記》작품들을 《詳節》작품으로 삼아도 전혀 무방하다. 특히, 77편 작품 중 47편은 《詳節》現存本에서 보이지 않는 작품이다. 비록 47편의 작품은 《通載》에 分散 수록되어 있지만, 이를 《詳節》卷次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

15) 張國風선생은 《通載》를 소개하면서 篇目을 정리하였으나, 篇名과 인용문헌에 誤謬 및 일부 작품들을 누락시켰고, (張國風 〈韓國古書《太平通載》《訓世評話》의 文獻價値〉; 《中國古代小說研究(第一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147-147쪽 註 참조) 金程宇선생과 王國良선생은 각각 《詳節》에서 보이지 않지만 《通載》에서 보이는 작품들을 소개하였지만 일부 誤謬事項을 범하였기 때문에, (金程宇 〈韓國古籍《太平廣記詳節》新研〉; 《域外漢籍叢考》(北京, 中華書局, 2007), 76-77쪽 참조. 王國良 〈李朝成任編印《太平廣記詳節》考論〉; 《國際漢學研究通訊(第四期)》(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262-266쪽 참조) 재정리하였다. 金相圭 〈新發現的《太平通載抄》小考〉; 《中國語文學論集》 2012년 제74호, 462쪽 재인용.

《詳節》 卷次	《通載》에 수록된 《詳節》 佚文
卷7	《陳季卿》, 《潘老人》, 《安祿山術士》, 《白皎》, 《茅安道》, 《管子文》, 《李子牟》, 《呂翁》
卷12	《漢武帝》, 《劉向》, 《河間男子》, 《南徐士人》, 《胡生》, 《李蒙》, 《徐孺子》
卷13	《東方朔》, 《曹植》, 《蔡洪》, 《張後裔》, 《崔光》, 《柳公權》, 《鐘敏》, 《林傑》, 《李德裕》, 《李琪》, 《韋莊》, 《于頔》, 《李紳》, 《葛周》
卷30	《獨孤穆》, 《華州參軍》, 《祖價》, 《鄭紹》, 《孟氏》
卷31	《曾季衡》, 《牛生》, 《韋鮑生》, 《許生》, 《顏睿》, 《牟穎》, 《王紹》, 《崇聖寺》, 《張仁寶》, 《楊蘊中》, 《鄭郊》, 《廣陵賈人》
卷49	《唐臨》

그 중 《詳節》 卷31에 수록되어 있는 12편 작품은 《通載》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卷31 전체가 復原 가능하다. 《通載》에 수록된 《廣記》 작품은 《詳節》 復原是 물론 《廣記》 校勘 및 復原이 가능한데, 본 절에서 몇 가지 實例를 들어 확인하고자 한다.

일찍이 두 제자에게 은폐술과 투명술을 전수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두 제자는 모두 부모를 모시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고자 청하였다. 茅安道는 그들을 보내며 말했다. “내가 法術을 전수하여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道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니, 情을 훔치기 위해 그 法術을 자랑해서는 안된다.”(曾授二弟子以隱形洞視之術, 有頃, 二子皆以歸養爲請. 安道遣之, 仍謂曰: “吾術傳示, 蓋資爾學道之用, 卽不得盜情而術其法也.)¹⁶⁾

談刻本은 “盜”라고 기재되어 있고, 沈與文野竹齋抄本(以下 沈抄本)¹⁷⁾은 闕文

16) 《廣記》 卷78 《茅安道》

17) 沈抄本은 明 嘉靖年間 藏書家 沈與文(1472-?)이 宋本을 근거로 하여 嘉靖 45년(1566) 이전에 筆寫한 筆寫本이다. 부분적으로 闕文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로 完整

이다. 《通載》卷8에는 “恣”字로 기재되어 있다.¹⁸⁾ “恣情”은 “마음대로 하다”, “함부로 하다”의 뜻으로 本例의 “即不得恣情而術其法也”은 “마음대로 그 法術을 자랑해서 는 안 된다”는 뜻이 된다. 문맥상으로 보아 “恣”이 正字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太平廣記》會校(以下 會校本)¹⁹⁾는 “盜”가 誤字로 의심된다. 《詳節》에는 “恣”로 기재되어 있는데 옳은 것 같다.(盜, 疑誤. 《詳節》作‘恣’, 似是.)²⁰⁾라고 校勘說明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談刻本을 그대로 따랐다. “恣”의 意符 “心”과 “盜”의 意符 “皿”의 俗字는 서로 字形이 유사함으로 誤字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과 강, 바람과 달은 예전 그대로인데, 왕릉의 이슬과 안개는 푸르네. 君子는 선조의 공덕에 의지하고서야 비로소 충의열사의 명성을 드러내네.(山河風月古, 陵寢露煙青. 君子乘祖德, 方垂忠烈名.)²¹⁾

談刻本은 “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沈抄本과 孫潛校宋本(以下 孫校本)²²⁾에서 “稟”字로 되어 있다. 《通載》卷65에서는 “秉”字로 기재되어 있는데,²³⁾ “秉”은 “稟”의 “받들다”, “이어받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本例에 수록된 詩는 臨淄縣主가 獨孤穆에게 쓴 〈與獨孤穆冥會詩〉로 《全唐詩》卷866에 수록되어 있다. 〈與獨

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판본 중 가장 많은 異文이 존재한다.

- 18) 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86쪽.
- 19) 張國風선생이 2011년 北京燕山出版社에서 출판한 會校本은 談刻本 세 번째 印本을 저본으로 하고, 孫校本, 沈抄本, 陳校本을 참조교정 판본으로 하였으며, 許刻本, 黃刻本, 四庫本, 《詳節》, 《太平通載》는 주요 보조판본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太平廣記》에 인용된 서적과 관련 古籍을 참고한 서적으로 1961년 汪紹楹선생이 點校한 中華書局本 이래로 現存하는 각종 판본을 수집 및 참고한 판본이다. 李昉等編 張國風會校 《太平廣記》會校(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1)
- 20) 李昉等編 張國風會校 《太平廣記》會校(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1), 963쪽. 중요한 사실은, 會校本 校勘說明에서 언급한 “《詳節》은 誤謬이다. 〈茅安道〉작품은 《詳節》卷7에 수록되어 있으나, 《詳節》卷7은 現傳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張國風선생이 《通載》를 《詳節》로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 21) 《廣記》卷342 〈獨孤穆〉
- 22) 孫校本은 淸初 藏書家 孫潛(1618-1678)이 淸 康熙7년(1668)에 南宋抄本을 근거로 談刻本에 손으로 직접 校勘하였다. 비록 권487에서 권500까지는 校勘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異文을 남겼다. 필자는 嚴一萍선생의 《太平廣記》校勘記를 孫校本으로 삼았다. 嚴一萍 《太平廣記》校勘記(臺北, 藝文印書館, 1970), 129쪽.
- 23) 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584쪽.

孤穆冥會詩)에도 《通載》와 동일하게 「군자는 선조의 덕을 의지하고(君子秉祖德)」라고 기재되어 있고, “秉”字 옆에 「다른 판본에는 “稟”라고 기재되어 있다.(一作“稟”)」²⁴⁾라고 割註하였다. 本例에서 “秉”과 “秉”은 모두 문맥상 자연스러우나 여러 판본과 《全唐詩》의 기록을 근거로 “秉” 혹은 “稟”字가 正字일 것으로 보인다.

내가 듣자하니 옛날 諸侯들은 天子에게 인재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둡을 존중하고 선함을 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거하는 것을 “好德”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천거하는 것을 “遵賢”이라고 부르며, 세 번째로 천거하는 것을 “有功”이라고 부르면서 九錫을 하사받았다.(謂長鬚曰: 吾聞古之諸侯, 貢士於天子, 尊賢勸善者也. 故一適謂之“好德”, 再適謂之“遵賢”, 三適謂之“有功”, 乃加九錫.)²⁵⁾

談刻本에서 “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通載》卷65에서는 “賢”字로 기재되어 있다.²⁶⁾ 沈抄本도 《通載》와 동일하다. 會校本에서는 「심본에는 “賢”이라고 기재되어 있다.(沈本作“賢”)」²⁷⁾라고 교감설명을 하였을 뿐 談刻本을 그대로 따랐다. 以上の 내용은 《漢書·武帝紀》에서도 보이는데, “賢賢”이라고 기재되어 있고,²⁸⁾ 李白 〈爲宋中丞自薦表〉의 「若三適稱美, 必九錫先榮」句에 대해서도 王琦은 「옛날에는 제후들이 인재를 추천하였는데, 첫 번째로 천거하는 것을 “好德”이라 부르고, 두 번째로 천거하는 것을 “賢賢”이라 부르고, 세 번째로 천거하는 것을 “有功”이라 부른다.(古者, 諸侯貢士, 一適謂之好德, 再適謂之賢賢, 三適謂之有功.)」이라고 注하였다. 以上을 근거로 하여 “賢賢”이 正字임을 확인할 수 있다.

《通載》의 일부 작품은 《廣記》를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廣記》의 인용문헌에서 직접 수록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작품 또한 다음과 같이 《廣記》校勘 및 復原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4) 彭定求等編《全唐詩》(北京, 中華書局, 1960), 9798쪽.

25) 《廣記》卷349 〈韋鮑生妓〉談刻本은 作品名을 〈韋鮑生妓〉이라고 하였으나, 《詳節》目錄과 《通載》卷65 그리고 沈抄本에서는 모두 〈韋鮑生〉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본 作品名은 〈韋鮑生〉이었으나 談愷가 重刊 시 任意的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26) 李來宗 朴在淵《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614쪽.

27) 李昉等編 張國風會校《太平廣記》會校(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1), 5888쪽.

28) 班固〈武帝紀〉: 「有司奏議曰: “古者, 諸侯貢士, 壹適謂之好德, 再適謂之賢賢, 三適謂之有功, 乃加九錫.”」《漢書》卷6)

宋明帝가 죽고, 劉昱이 왕위를 이어받아 宋幼帝가 되었다. 幼帝는 난폭하여 살육을 자행하고, 매사에 제멋대로였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창과 톱을 들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다.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머리와 생식기를 가격하거나, 심장을 찌르고 배를 가르는 살육을 저질렀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었다. 孝武帝에게는 2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明帝는 그 중 16명을 죽였고, 나머지는 모두 幼帝가 죽었으니, 孝武帝의 자손들은 조정에서 사라졌다. (明帝崩, 昱嗣位, 是爲幼帝. 幼帝狂暴, 恣行誅戮, 出入無度. 從者並執鋌矛錐鋸自隨. 有忤意, 擊腦椎陰, 刺心剖腹之誅, 日有數十. 孝武帝二十八子, 明帝殺其十六, 餘皆帝殺之, 子孫無在朝者. 出《談藪》)²⁹⁾

談愷本과 中華書局本에 수록된 以上の 〈宋幼帝〉는 沈抄本에서 다음과 같은 闕文이 존재한다.

明帝崩, □□□□□幼帝. 幼帝狂暴, 恣行誅戮, 出入無度. □□□□□□□
□鋸自隨. 有忤意, □□椎陰, 刺心剖腹, □□□□□□□, 孝武子孫無在朝者.
出《談藪》

뿐만 아니라, 嚴一萍先生은 孫校本과 談刻本 간의 〈宋幼帝〉 異文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昱嗣位是爲」作「□□□□□」; 缺「從者並執鋌矛錐鋸自隨有忤意」十三字; 缺「日有數十孝武帝二十八子明帝殺其十六餘皆帝」二十字。」³⁰⁾

《通載抄》에도 〈宋幼帝〉가 수록되어 있는데, 出處가 《廣記》가 아닌 《談藪》라고 기재되어 있다. 《通載抄》의 〈宋幼帝〉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宋明帝가 죽고, 太子 劉昱이 왕위를 이어받아 宋幼帝가 되었다. (幼帝는) 난폭하여 살육을 자행하고, 매사에 제멋대로였다. 항상 창과 정, 톱을 들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다.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생식기를 가격하거나, 심장을 찌르고 배를 갈랐는데, 하루에도 열 번 이렇게 처벌되었다. 宋幼帝는 이러한 행위를

29) 《廣記》卷267 〈宋幼帝〉

30) 嚴一萍 《《太平廣記》校勘記》(臺北, 藝文印書館, 1970), 97쪽.

낙으로 삼았기 때문에, 孝武帝의 자손들은 조정에서 사라졌다. (明帝崩, 太子昱立, 是爲幼帝. 狂暴, 恣行誅戮, 出入無度. 常以椎柏鍼鑿錐鋸自隨. 有忤意者, 輒椎陰, 刺心剖腹, 日有十處. 以此爲樂, 孝武子孫無在朝者. 出《談藪》)

이상 판본 대조를 통하여 《通載抄》와 談刻本 간의 異文이 沈抄本과 孫校本에 나타나는 闕字와 거의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다. 《廣記》 여러 판본 및 《通載抄》간에 이러한 異文이 나타난 이유는 上記한 談愷의 序文에서도 나와 있듯이 談愷가 당시 보았던 殘宋本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闕文이 존재했으므로 談愷는 이를 任意的으로 교정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비록 成任이 직접 《談藪》를 보았거나 《談藪》가 傳入된 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通載抄》에 수록된 〈宋幼帝〉 내용이 原文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成任이 《談藪》의 〈宋幼帝〉가 수록된 다른 類書나 책에서 인용했다면, 그 出處를 분명히 明示하였을 것이다. 成任은 《廣記》에서 이미 인용했던 문헌에서 다시 새로운 작품을 인용한 경우가 있는데, 一例로 《廣記》卷173에 수록된 〈崔光〉도 《談藪》에서 인용된 작품이지만, 《通載》卷28에는 그 出處를 “《談藪》가 아닌 “《太平廣記》”라고 기재하였다.³¹⁾ 뿐만 아니라, 《通載》에는 《廣記》, 《法苑珠林》, 《韻府群玉》, 《事文類聚》, 《事林廣記》 등 여러 類書에서 選文하면서 그 出處가 類書인지 個別文獻인지 분명히 하였다. 이는 그가 選文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입장을 고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廣記》가 본래 類書이기 때문에, 《通載》에 수록된 《廣記》 관련 작품은 《廣記》 자체의 판본 교감을 넘어 唐宋 이전의 문헌 복원작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上記한 《談藪》는 北齊 陽玠松이 지은 志人類 筆記文獻으로 현재는 亡失되었고, 일부 작품들이 《廣記》, 《類說》, 《紺珠集》 등에 散在되어 있다. 1996년 中華書局은 “古小說叢刊”을 편찬하면서 《談藪》도 수록하였는데, 〈宋幼帝〉를 비롯하여

31) 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452쪽.

32) 李來宗 〈《太平通載》一考〉: 「《태평통제》는 《태평광기》에서 과거에 이미 선문을 했던 일부 문헌에서 새로 글을 뽑아 놓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태평광기》가 이미 많은 글을 발췌하였던 《사기》에서 성임은 새로 〈甘羅〉와 〈張湯〉의 일화를 뽑아서 《태평통제》 권29 幼敏編에 넣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성임이 《태평광기》의 편목 설정이나 선문의 실제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大東漢文學》 1994년 제6집, 138-139쪽)

여러 《談藪》의 작품을 輯錄만 하였을 뿐, 誤謬에 대한 校勘은 진행하지 않았다.³³⁾ 그러나 《通載抄》에 수록된 〈宋幼帝〉를 통하여 《談藪》를 校勘 및 復原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校勘書의 誤謬도 校正이 가능하다. 《玄怪錄》은 唐代傳記小說集으로 지금은 이미 망실된 문헌인데, 明刻本 《玄怪錄》 두 種이 발견되기 전까지 《廣記》에 인용된 30여 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그 대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明刻本이 발견되면서 程毅中先生은 談刻本 《廣記》에 수록된 《玄怪錄》 작품을 통하여 明刻本 《玄怪錄》 書林陳應翔刻本과 高承埏稽古堂刻本을 각각 교감하였고, 談刻本 《廣記》과 明刻本 《玄怪錄》 간에 적지 않은 異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⁴⁾ 중요한 사실은 《詳節》과 《通載》에 수록된 《玄怪錄》 작품을 明刻本 《玄怪錄》과 對照하여 보면, 談刻本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³⁵⁾ 《通載》에 수록된 中國 引用文獻을 통하여 기존 校勘書에 대한 誤謬를 새롭게 校正할 수 있다. 《廣記》의 引用文獻은 400여 種이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이미 亡失된 문헌들이다. 이러한 문헌들은 “고대소설의 寶庫”인 《廣記》에 의거하여 考證 및 校勘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廣記》를 통하여 현재 세상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通載》를 통한 《廣記》 校勘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太平通載》에 수록된 기타 散失 문헌과 佚文의 가치

《通載》에는 《廣記》 관련 작품 이외에도 中國 내 散失된 문헌 및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一例로 《通載》 卷66에 수록된 〈周助〉와 〈崔慶成〉 두 작품을 들 수 있다. 李劍國先生은 일찍이 《通載》에 수록된 두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33) 陽玠松撰 程有慶輯校 《談藪》: 「明帝崩, 昱嗣位, 是爲幼帝. 幼帝狂暴, 恣行誅戮, 出入無度. 從者並執鋌矛錐鋸自隨. 有忤意, 擊腦椎陰, 刺心剖腹之誅, 日有數十. 孝武帝二十八子, 明帝殺其十六, 餘皆帝殺之, 子孫無在朝者.」(北京, 中華書局, 1996), 47쪽. 末尾에는 “《廣記》二六七”을 기재하여 輯錄한 出處를 알렸다.

34) 程毅中先生은 1982년 談刻本으로 書林陳應翔刻本을 교감하였고, 高承埏稽古堂刻本이 발견 후 2008년 다시 談刻本으로 高承埏稽古堂刻本을 교감하였다. 牛僧孺撰 李復言撰, 程毅中 點校 《玄怪錄》《續玄怪錄》(北京, 中華書局, 1982), 牛僧孺撰 李復言撰, 程毅中 點校 《玄怪錄》《續玄怪錄》(北京, 中華書局, 2008)

35) 金相圭〈明高承埏稽古堂刻本《玄怪錄》重新校勘——以與韓國所藏《太平廣記詳節》的對照爲中心〉; 《圖書館理論與實踐》2013년 제8기, 참조.

하였다. 「조선시대 성임이 편찬한 《태평통재》권66(鬼四)에서도 《적유신설》을 인용하였는데, 〈최경성〉과 〈주조〉 두 작품으로 모두 全文이며 〈최경성〉은 바로 《유설》에 수록된 〈독면고관〉이다. (朝鮮成任《太平通載》卷六六(鬼四)亦引《摭遺新說》, 凡〈崔慶成〉、〈周助〉二事, 皆爲全文; 〈崔慶成〉即《類說》本之〈獨眠孤館〉)」³⁶⁾ 그러나 그는 著書에서 原文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摭遺新說》(以下《摭遺》)은 北宋後期 著名한 小說家 劉斧가 20卷으로 纂한 小說集으로 《摭遺》, 《摭遺集》, 《摭遺新書》 등의 異名이 있다. 《永樂大典》에 수록된 《摭遺》 몇몇 作品들을 통하여 明初에는 文獻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후 《摭遺》의 書名이나 作品이 다른 文獻에서 보이지 않아 《永樂大典》 編纂 이후 亡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永樂大典》을 비롯한 《類說》, 《紺珠集》, 《詩話總龜》 등에 일부 佚文들이 節錄되어 散在하고 있는데, 그 중 《永樂大典》 卷913 “尸異”에 〈周助〉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조는 열일곱 여덟살된 기읍(畿邑) 봉구(封丘) 사람으로 풍채가 매우 출중했다. 그의 아버지는 주조를 위해 같은 고을에 사는 손씨를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정하고 이미 혼례날짜를 잡고 예물이 오고갔다. 어느날 저녁, 손씨가 병에 걸려 주조 어머니께 안부를 여쭙며 말했다. “아마도 제 병이 완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낭군님의 시중을 들 수 없으니 죽어서라도 한이 됩니다.” 손씨가 죽자 주조는 그녀의 용모가 빼어났고,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알게 되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해졌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생과 친한 사이라 그에게 속내를 말했다. 이생은 식견이 좁고 무식하지만, 성격이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었다. 이생이 듣고 나서 주조에게 말했다. “이 일은 쉽다네. 지금이 한창 엄동설한이고 손씨가 죽은 지 몇 일되지 않아서 시신이 변질되지 않아 용모가 그대로일 테니 관을 뜯어서 본들 해가 되겠는가?” 주조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생과 술을 실컷 마셨다. 해질녘 성 밖으로 나가 손씨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파니 관이 보였다. 이생이 주조에게 직접 관 뚜껑을 개봉하라고 하자 시체가 일어나더니 주조를 붙잡고 말했다. “낭군님은 정말 정이 있으신 분이군요. 제가 이미 죽었지만 벨 수 있다니 부부의 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조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주조는 처음에 그녀를 귀신으로 생각하다가 한편으로는 살아났을 것이라고 의심도 했으나 복사꽃과 살구꽃 같은 그녀의 미모를 다시 보니 무섭지 않았다. 그들은 담을 넘은 후에 주조가 두루마기를 벗어 땅이 깔고 손씨와 동침하였다. 시간이

36) 李劍國《宋代志怪傳奇敘錄》(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7), 200쪽.

지나고 주조가 질문을 해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일으켜도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주조는 놀라서 이생을 불러 다시 시신을 함께 들고 무덤으로 옮겨 뚜껑을 덮은 후 정리하고 떠났다. 주조는 반년 채 지나지도 않고 죽고 말았다.(周助畿邑封丘人, 年十七八, 風采甚美. 父爲助約同邑孫氏爲婦, 已問名納采. 一夕孫以病, 問其母曰:“料不起矣, 所不足者, 不得侍助之中櫛, 雖死爲泉下恨矣.”孫卒, 助聞其容色絕品, 又知其瞑目之說, 私心怏怏. 與同裏李生善, 以情告之. 李生庸人無識, 但其志銳然敢爲者也. 因謂助曰:“此易耳. 今方大冬, 孫死未數日, 屍顧未變, 容色如舊, 破其棺視之何害?”助然之, 與李生極飲, 暮出郭, 至其窆所, 掘之, 見其柩. 李生乃令助自起其蓋, 則屍然而起, 執助曰:“郎真有情者也. 我已化去, 而能見遇, 夫婦之情盡矣.”乃起與助攜手而行. 助初爲之鬼也, 又疑其更生, 復見其顏色若桃李, 亦不懼. 乃共逾一垣, 助脫袍藉地, 與孫合. 既已, 助復詢之則不語, 以手舉之則不動, 奄然死矣. 助驚, 呼李生共舉其屍, 復還窆所, 蓋棺整窆而去. 助不半年亦死.)

〈周助〉는 유일하게 《永樂大典》에서만 보이고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품이다. 그러나 《通載》 卷66에는 〈周助〉의 全文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주조는 기읍(畿邑) 봉구(封丘) 사람으로 어느 고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주조는 열일곱 여덟살로 풍채 또한 매우 수려했다. 그의 아버지는 주조를 위해 같은 고을에 사는 손씨를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정하고 이미 혼례날짜를 잡고 예물이 오고갔다. 어느날 저녁, 손씨가 병에 걸려 앓아 누었는데, 몇 일이 지나도 낫지 않자 손씨는 주조의 부모님께 말했다. “아마도 제 병이 완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낭군님께 시중들 수가 없으니 죽어서라도 한이 됩니다.” 그 날 저녁, 손씨가 죽고 성곽 남쪽 황무지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 주조는 그녀의 용모가 빼어나고,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알게 되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해져 술에 취해 혼미할 정도로 그녀가 그리웠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생과 매우 친한 사이라 그에게 속내를 말했다. 이생은 본래 식견이 좁고 고급에 대해서도 무식하지만, 성격이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었다. 이생이 듣고 나서 주조에게 말했다. “이 일은 쉽다네. 지금이 한창 엄동설한이고 또한 손씨가 죽은 지 몇 일되지 않아서 시신이 물론 변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모도 그대로일 테니 남쪽 성곽으로 가서 그 관을 열어 보고 다 본 후 다시 관을 닫아 정리해 놓으면 해가 되겠는가?” 주조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 좋네!” 그리고는 이생과 술을 실컷 마시고 해질녘에 성 밖으로 가고자 하였다. 손씨의 무덤에 도착하니 성 밖은 이미 밤이 되었고 사람들도 없어 이생은 [] 얼마되지 않아 관

이 보였다. 이생이 주조에게 직접 관 뚜껑을 개봉하라고 하자 시신이 별떡 일어나 더니 주조를 붙잡고 말했다. “낭군님은 정말 정이 있으신 분이군요. 제가 이미 죽었지만 찾아와 주시니 부부의 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조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주조는 처음에 그녀를 귀신으로 생각하다가 한편으로는 살아났을 것이라고 의심도 했으나 복사꽃과 살구꽃 같은 그녀의 미모를 다시 보니 무섭지도 않았다. 그들은 얇은 담을 넘은 후에 주조가 두루마기를 벗어 땅이 깔고 손씨와 동침하였다. 주조는 너무 흐뭇하여 손씨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시간이 지나고 주조가 질문을 해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일으켜도 움직이지 않았다. [] 맑은 향기가 난초자루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쏘아 붓고, 버드나무가 드리워져 그 가지 들어 올리니, 봄철의 연근은 경혈(經穴)을 차분히 바라보고, 연분홍색은 이미 연해져 눈을 감았다. 또한 여자의 입술이 닫히고 다시 고요해지니 영혼이 돌아 오지 않고 떠돌아다니다가 여자가 돌연히 죽고 말았다. 주조는 놀라서 이생을 불러 시신을 함께 들고 다시 무덤으로 옮겨 뚜껑을 덮은 후 정리하고 떠났다. 다음 날 저녁, 손씨의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손씨가 말했다. “주조가 저를 보러왔습니다. 저는 이미 주조와 부부지간의 예식을 치렀으나 같이 왔던 사람이 제 금비녀와 귀걸이를 훔쳐 갔습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잠을 깨서 놀랐지만,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아들 한 명을 보내 딸의 관을 보게 하였다. 아들이 돌아와서 말했다. “관이 뜯어져 훼손되어 있고 주조가 시신을 만졌다는 것을 몰래 본 사람도 있습니다.” 손씨 아버지는 임의대로 마을에서 시비를 판단하였고, 소송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마을은 이 일을 관청으로 보냈다. 주조는 이생이 비녀를 훔친 사실을 몰랐고, 또한 조상의 음덕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생은 묵형(墨刑)과 편배(鞭背) 형에 처해지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된 후 주조도 반년 채 되지 않아 죽었다. 주조가 죽기 전에는 손씨와 주조의 평소와 같이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자주 들리곤 하였다. (周助畿邑封丘人也。家居某邑下粗有產，足以爲生。助年十七八，風采亦甚秀美。父爲助約同邑孫氏爲婦，以問名納采。一夕孫臥病，不數日沉綿，孫告其父母曰：“我料不起矣，所不足者，不得待助之中櫛，雖死爲泉下恨也。”是夕，孫氏卒，權窆於城南荒圃中，助聞孫氏容色絕品，又知其瞑目之說，私心怏怏，思如昏醉。助與同里李生甚善，乃以情告之。李生本庸人不識古今，但其志銳然敢爲者也。因爲助曰：“此易耳。今方大冬，且孫死未數日，其尸固未變，容色如舊，就往南城開其攢，破其棺觀之。已則復合柩，修攢如故，何害？”助喜曰：“甚善。”乃與李生極飲，欲暮出郭，至其窆所，郭外旣暮則無人，李生乃〔 〕攢不久見柩。李生乃令助自舉其蓋，則其尸欸然起，執助衣曰：“郎眞有情者也。我已化去，而能見訪，夫婦之情盡矣。”乃起與助攜手而行，助初爲之鬼也，又疑其更生，復見顏色若桃李，亦不懼。乃共踰一短垣，助脫袍藉地，與孫合。助大慳幽抱。旣已，助復詢之則不語，以手舉之則不動。王冷香銷蘭囊，柳困舉其支，則春藕輕柔視其臉，則輕紅已淡呈

目瞑. 而不開檀唇合, 而復冷膩. 魄不返嬌魂再飄, 復奄然死矣. 助驚, 呼李生共舉其尸, 復遂窆所, 蓋棺整橫而去. 次夕, 孫氏之父夢孫氏曰: “助來見我矣. 我已與助成夫婦之禮, 但同來者竊我金釵耳環而去. 父爲我取之.” 父覺驚, 未甚深信. 乃遣一子視其櫨, 還則曰櫨破棺毀亦有人竊見. 助遇尸之事, 孫父恣乃訟於邑, 連獄成邑上其事於府. 助以不知李生之竊釵, 又以祖廕贖銅. 李生則黥面鞭背, 流於遠方後, 助不半歲亦死未死. 中夜多聞孫助語笑如平生. 出《摭遺新說》³⁷⁾

이외에도 《類說》 卷34에는 〈獨眠孤館〉이라는 작품이 節錄되어 있는데, 《通載》 卷66에는 〈崔慶成〉의 篇名으로 〈獨眠孤館〉과 동일한 작품이 全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 篇幅이 《類說》의 3배 이상이나 된다.

《通載》를 통하여 작품 출처도 확인 가능하다. 明 馮夢龍(1574-1646)은 歷代 筆記小說 및 기타 문학작품 중에서 남녀 愛情故事들을 선별하여 수정 후 《情史類略》를 편찬하였는데, 총 800여 편의 고사가 수록되어 있으나 출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 중 2卷 情緣類에 〈徐信〉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건염(建炎) 삼년, 어가(御駕)가 건강(建康)에 머물게 되었다. 군교(軍校)인 서신이 밤에 처와 저자거리로 나가 잠시 차관 옆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서신의 처를 잡기도 눈을 떴지 않고 몰래 걸눈질하였다. 서신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자리를 떠났다. 그 사람은 줄곧 집까지 따라와서는 아쉬워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서신은 그 이유를 물으니 손을 모아 공손히 사죄하며 말했다. “솔직한 제 마음을 당신께 말씀드릴테니 화를 내지 않으시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골목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좀 옮기시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은 그의 말대로 하니 말을 시작하였다. “당신 부인은 어느 주 어느 현의 누구이지 않습니까?” 서신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렇소.”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리며 울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처입니다. 저희 집은 정주(鄭州)인데, 아내를 얻은 지 이제 삼년이 되었으나 금용(金戎)의 난을 겪으면서 급히 도망쳐 떠돌아다니다가 헤어졌는데, 지금 어찌 당신 집에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서신도 이로 인해 비탄해 하며 말했다. “본인은 진주(陣州)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부인을 잃어버렸는데, 회남(淮南)의 어느 시골 객점에서 옷이 풀려지고 머리가 산발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땅에 앉아 패잔병에게 약탈을 당해 여기까지 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옷을 벗어 입혀주고 음식을 주면서 하루 이틀 머물게 한 것이 뜻밖에도 그녀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부

37) 李來宗 朴在淵 《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642-645쪽.

인인줄 몰랐는데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가 말했다. “이제 저는 재혼을 했으니 스스로 위로하면서 옛 정을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인을 잠깐 보고 그동안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한 후 영원히 이별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서신은 본래 관대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부탁을 허락하였다. 내일로 약속을 잡고 새로운 부인과 함께 오라고 하였으니 동네 사람 간에 의심할 것이 크게 없었다. 그는 기쁘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내일되자 그의 부부가 서신의 집에 방문하였다. 서신이 마중을 나가 멀리 보고나서 오랫동안 통곡하였다. 손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본 처였던 것이다.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탄식하고 애석해 하며 가슴을 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이 날 서로 본 처들이 돌아와 두 집안은 사돈처럼 왕래하였다.(建炎三年, 車駕駐建康. 軍校徐信, 與妻子夜出市, 少憩茶肆旁, 一人竊睨其妻, 目不暫釋. 信怪之, 乃捨去. 其人踵躡及門, 依依不忍去. 信問其故, 拱手遜謝曰:“心有情實, 將吐露于君, 君不怒, 乃敢言. 願略移步至前坊靜處, 庶可傾竭.”信從之. 始言曰:“君妻非某州某縣某姓氏耶?”信愕然曰:“是也.”其人掩泣曰:“此吾妻也. 吾家於鄭州, 方娶三年, 而值金戎之亂, 流離奔竄, 遂成乖張. 豈意今在君室.”信亦爲之感愴, 曰:“信, 陳州人也. 遭亂失妻. 至淮南一村店, 逢婦人散衣蓬首, 露坐地上, 自言爲潰兵所掠, 到此不能行. 吾乃解衣饋食, 留一二日, 乃與之俱. 初不知爲君婦, 今將奈何?”其人曰:“吾今已別娶, 藉其貲以自給, 勢無由復尋舊盟. 倘使暫會一面, 敘述悲苦, 然後訣別, 雖死不恨.”信固慷慨義士, 卽許之, 約明日爲期, 令偕新妻同至, 庶於鄰里無嫌. 其人歡拜而去. 明日, 夫婦登信門. 信出迎望見, 張勸. 則客所攜乃信妻也. 四人相對驚惋, 拊心號咷. 是日, 各復其故, 通家往來如姻婭云.)

아래는 《通載抄》에 수록된 〈徐信〉이다.

송 정강(靖康) 삼년, 어가(御駕)가 건강(建康)에 머물게 되었다. 군교(軍校)인 서신이 처와 잠시 차관 옆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서신의 처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몰래 결눈질하며 보는데 친척인 것 같았다. 서신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자리를 떠났다. 그 사람은 집까지 뒤를 따라와서는 아쉬워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서신은 그 이유를 물으니 손을 모아 공손히 사죄하며 말했다. “솔직한 제 마음을 당신께 말씀드릴테니 화를 내지 않으시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골목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좀 옮기시죠.” 그리고 말을 시작하였다. “당신 부인은 어느 주 어느 현의 누구이지 않습니까?” 서신은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리며 울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처입니다. 저희 집은 정주(鄭州)인데, 아내를 얻은 지 이제 2년이 되었으나 금용(金戎)의 난을 겪으면서 급히 도망쳐 떠돌아다니다가 헤어졌는데, 지금 어찌 당신 집에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서신도 이로

인해 비탄해 하며 말했다. “본인은 진주(陣州)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부인을 잃어버렸는데, [] 회남(淮南)의 어느 시골 객점에서 옷이 풀러지고 머리가 산발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땅에 앉아 패잔병에게 약탈을 당해 여기까지 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옷을 벗어 입혀주고 음식을 주면서 하루 이틀 머물 게 한 것이 뜻밖에도 그녀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부인인줄 몰랐는데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가 말했다. “이제 저는 재혼을 했으니 스스로 위로하면서 옛 정을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인을 잠깐 보고 그동안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한 후 영원히 이별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서신은 본래 관대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부탁을 허락하였다. 내일 아침으로 약속을 잡고 새로운 부인과 함께 오라고 하였으니 동네 사람들 간에 의심할 것이 크게 없었다. 그는 기쁘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예정대로 그의 부부가 서신의 집에 방문하였다. 서신이 마중을 나가 멀리 보고나서 오랫동안 통곡하며 말했다. “손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제 처입니다.”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놀라며 기뻐했다. 이 날 서로 본 처들이 돌아오길 원했고, 후일 두 집안은 사돈처럼 왕래하였다.(宋靖康三年³⁸), 車駕駐建康. 軍校徐信, 與妻子少憩茶房傍, 一人竊視其妻, 目不暫釋, 如有所屬者. 信怪之, 乃捨去. 其人隨後相進至門, 依依不忍去. 信問其故, 卽拱手謝曰:“心有情實, 與君言, 君不怒, 我乃可, 遂邀至前坊靜處.”始言曰:“君妻非某州某縣人姓某氏耶?”信愕然. 其人掩泣曰:“此吾妻也. 吾家於鄭州, 方娶二年, 而值金戎之亂, 流離奔竄, 遂成乖張. 豈意今在君家.”信亦爲感愴, 曰:“信, 陳州人也. 遭亂失妻. 正與君[]偶, 至淮南一村店, 逢婦人敝衣蓬頭, 露坐地上, 自言爲潰兵所掠, 到此以不能行見棄. 吾解衣饋食, 留一二日, 乃與之俱. 初不知爲君故婦, 今將奈何?”其人曰:“吾今已別娶, 籍其貲以自給, 勢無由復尋舊盟. 倘使暫會面, 敘述悲苦, 然後永訣, 死不恨.”信固慷慨義士, 卽許之, 約明朝爲期, 而令偕新妻同至, 庶於鄰里間無他嫌也. 其人喜再拜而去. 如期, 夫婦登信門. 信出迎望見, 長慟曰:“客所攜蓋信妻也.”四人相對且驚且喜. 是日, 願相與各復其故妻, 後兩家往來爲婚姻云. 出《閑中雜錄》)

《通載抄》에는 〈徐信〉의 出處를 “《閑中雜錄》”이라고 기재하였다.³⁹⁾ 以上の 두

38) 宋靖康三年은 誤謬이다. “靖康”은 宋 欽宗의 年號로서 北宋 의 마지막 年號이기도 한데, 欽宗 在位期間은 1126년 1월에서 1127년 3월까지로 2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情史類略》의 〈徐信〉에서는 “建炎三年(1129)”로 기재되어 있다. “建炎”은 宋 高宗(재위기간1127-1162)의 첫 年號로서 南宋의 첫 번째 年號이기도 하다.

39) 《通載抄》 現存本에서 보이는 引用文獻 중 《閑中續錄》 書名이 보이는데, 〈楊二郎〉, 〈黃襲甫〉 두 작품의 出處이다. 이 두 작품 모두 江陵船橋莊 所藏本 《通載》 卷66과 卷67에 수록되어 있고, 《通載抄》의 底本도 江陵船橋莊本이므로 《閑中雜錄》과 《閑中

문헌에 수록된 〈徐信〉 작품을 대조하여 보면 적지 않은 異文이 존재하는데, 馮夢龍이 《情史類略》을 編纂할 때 수정하였으므로 《通載抄》을 통해서 〈徐信〉의 全文을 확인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오늘날 중국에서 散失된 문헌 혹은 그와 관련된 版本이나 일부 佚文이 종종 국내에서 발견되어 국내외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通載》는 朝鮮時代에 刊行된 문헌이지만 수록된 중국 작품들이 바로 上記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 看過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通載》 자체적인 문헌 가치 연구를 넘어 문헌에 수록된 중국 引用文獻 개별 작품들의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通載》에 수록되어 있는 《廣記》 관련 작품들을 통하여 現存하지 않는 《詳節》 47篇 작품을 보완할 수 있고,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각 학계에서 현재 談刻本과 中華書局本을 《廣記》 原本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通載》를 통하여 談刻本과 中華書局本의 誤謬를 校勘할 수 있는 가치를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通載》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散失 문헌 및 佚文을 소개하였다. 一例로 《通載》 卷66에 수록되어 있는 〈周助〉와 〈崔慶成〉은 《摭遺》의 작품으로 그동안 《永樂大典》 卷913과 《類說》 卷34에서 각각 그 面貌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데 불과했지만, 《通載》 卷66에 두 작품의 全文이 수록되어 있고 본고에서 〈周助〉 작품 全文을 소개하였다. 또한 《情史類略》 2卷에 수록되어 있는 〈徐信〉의 出處가 《通載》에 기재되어 있어 진실보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通載》를 통한 《廣記》 校勘 연구와 《通載》에 수록된 중국 산실 문헌 및 일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문헌 校勘 및 復原작업은 文學, 語學, 史學 등 여러 연구 분야의 기초 작업인 만큼 앞으로 《通載》를 중심으로 세부적이고 전면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參考가 될 資料를 제공하고자 한다.

續錄) 두 문헌이 동일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두 문헌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雜”이 “續”의 誤字일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成任編, 李來宗 朴在淵主編《太平通載》서울, 學古房, 2009.
- _____, 無氏抄《太平通載抄》, 淑明女子大學校圖書館所藏本.
- _____, 金長煥 樸在淵 李來宗校勘《太平廣記詳節》서울, 學古房, 2005.
- 李昉等編, 談愷重刻〈談愷本《太平廣記》〉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9.
- _____, 沈與文野竹齋抄, 中國國家圖書館所藏本.
- _____, 汪紹楹點校《太平廣記》北京, 中華書局, 1961.
- 嚴一萍《〈太平廣記〉校勘記》臺北, 藝文印書館, 1970.
- 彭定求等編《全唐詩》北京, 中華書局, 1960.
- 陽玠松撰 程有慶輯校《談藪》北京, 中華書局, 1996.
- 張國風《〈太平廣記〉會校》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1.
- _____, 《〈太平廣記〉版本考述》北京, 中華書局, 2004.
- _____, 〈韓國古書《太平通載》《訓世評話》的文獻價値〉: 《中國古代小說研究(第一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張伯偉《朝鮮時代書目叢刊》北京, 中華書局, 2004.
- 金程宇《域外漢籍叢考》北京, 中華書局, 2007.
- 李劍國《宋代志怪傳奇敘錄》,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7.
- 王國良〈李朝成任編印《太平廣記詳節》考論〉: 《國際漢學研究通訊(第四期)》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 金長煥 朴在淵 李來宗《〈太平廣記詳節〉研究》, 《中國語文學論集》29호, 2004.
- 李來宗《〈太平通載〉一攷》, 《大東漢文學》6집, 1994.
- 李仁榮《〈太平通載〉殘卷小考》, 《震檀學報》12집, 1940.
- 朴文烈《〈清芬室書目〉考(1)——특히 鶴山の 古書の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중심으로》: 《圖書館研究》22권 3호, 1981.
- 趙維國《〈永樂大典〉所存宋人劉斧小說集佚文輯考》: 《文獻》2기, 2001.
- 趙章超〈宋人劉斧小說輯補〉: 《文獻》3기, 2006.
- 金相圭〈新發現的《太平通載抄》小考〉: 《中國語文學論集》74호, 2012.
- _____, 〈明高承埏稽古堂刻本《玄怪錄》重新校勘——以與韓國所藏《太平廣記詳節》的對照爲中心〉, 《圖書館理論與實踐》8기, 2013.
- _____, 《〈太平廣記〉異文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中文提要】

《太平通載》是朝鮮時代成宗年間由文人成任(1421-1484)從十五世紀前韓中兩國各種文獻中選取而編撰的書籍，其刊行時期為成任去世了八年之後，即成宗二十三年(1492)。雖然該書總卷數本浩繁，但目前流傳下來的僅有木版本12卷和筆寫本1冊。迄今為止，國內外幾位學者主要從文獻學、文學的兩種角度對《太平通載》進行了一些研究，但還沒有人對《太平通載》所收錄的引用文獻，尤其是對中國引用文獻進行個別、具體研究。因此，本文以《太平通載》現存本為研究對象，對其所收錄的中國引用文獻的價值以實例進行考察。為了更進一步地考察，本文主要分成兩大部分進行：一是由於《太平通載》所收錄的中國文獻中引用次數最多的就是《太平廣記》，就對與《太平廣記》相關的作品進行考察；二是由於除了與《太平廣記》相關的作品以外，還有些文獻或作品是早已在中國散失的，就對其文獻的價值進行探討。

【主題語】

《태평통재》, 《태평광기》, 《태평광기상절》, 중국 산실문헌, 교감
《太平通載》, 《太平廣記》, 《太平廣記詳節》, 中國散失文獻, 校勘
《Tai Ping Tong Zai》, 《Tai Ping Guang Ji》, 《Tai Ping Guang Ji Xiang Jie》,
Chinese's Lost Literature, Collation

투고일: 2015. 4. 15 / 심사일: 2015. 4. 20~5. 5 / 게재확정일: 2015. 5. 10
